

고령 사회 친화적 문화 환경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

-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노인의 형상을 중심으로 -

류수열**

< 차례 >

- I. 서론
- II. 고령 사회 친화적 문학교육의 정당성
- III. 노인 형상 관련 학습 내용 분석
 - 1. 고전시가 장르
 - 2. 고전산문 장르
- IV. 노인 형상 관련 교수-학습 내용 구성 방향
 - 1. 고전시가 장르
 - 2. 고전산문 장르
- V. 결론 : 요약 및 제언

I. 서론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경향은 고령화 사회 및 초 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고령화 속도는, 대비도 하기 전에 사회의 기반 자체를 급속하게 변화시켜 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구의 빠른 고령화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agequake'라는 신조어를 통해 지진에 비유하기도 한다(이현승 외, 2003). 이런 시점에서 저출산과 고령 사회가 가져오게 될 변화와 그 변화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의 공유와 확대가 절대적으로 시급하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교육을 통한 개입은 가장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그것은 교육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향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수준에서 단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그 효과는 배가된다. 이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사회 현안들은 교육적 개입을 통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지는 방안을 고려하게 된다. 그리하여 개별 교과를 통한 교육이나 재량활동 또는 특별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곤 한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기 이후부터 범교과 학습 주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의제에 대한 범교과적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¹⁾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에너지교육, 성교육 등과 같은 내용이 범교과 학습 주제의 내용으로 설정되어, 관련되는 교과와 특별활동 등 학교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국어교육에서도 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의 공적 책무에 가감 없이 부합하는 일이다. 고령사회에 관련된 사회적 의제에 교육적 개입이 시급한 이유는, 지금 당장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 측면에서 고령 사회 친화적 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현재의 학생들이

1) 실제로는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범교과 학습 주제는 존속해 왔었다. 다만 그 개념을 문서에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1997년에 고시된 7차 교육과정기 부터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순경(2006) 참조.

20~30년 후 성인으로서 경제 활동에 참여할 때 지녀야 할 건강한 시민 의식 중의 하나로서 고령 사회 친화적 의식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저출산에 대한 의식 교정과 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특히 이 연구에서는 고령 사회 친화적 문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논의에서는 우선 국어교육의 제반 영역 중에서도 문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문학작품은 주로 읽거나 쓰기 영역에서 설명적인 글이나 설득적인 글에 비해 학습자의 선호도가 높아서 자기 주도적 참여도를 이끌어내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므로 문학교육적 기획과 처방은 어떤 교과교육보다도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는 우선 고령 사회 친화적 문화 환경 조성에 대한 문학교육의 대응이 교육과정적 층위에서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문학 교과서에서 발견되는 고령 사회 관련 내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차후에 편찬될 교과서에서 고령사회라는 사회적 의제를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동시에 이는 교과서 및 기타 교재에 활용될 수 있는 문학작품과 교수-학습 활동을 발굴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현재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만일 고령 사회 대비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면, 어떠한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한지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노인이 등장하는 한국의 고전문학 작품들을 교재화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형상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고전문학에는 모든 형상이 근대 이전 사회에서 노인에 대해 우리 선조들이 지녔던 사고방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고전문학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계승해야 할 점과 지양해야 할 점을 분별함으로써 교수-학습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겠다.

분석 자료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18종의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이

다.²⁾ 이 교육과정기에는 '저출산·고령 사회' 관련 항목이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제시되기 이전이어서, 편찬자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고령 사회 대비 학습 내용이 그다지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³⁾ 그러나 고전문학 작품은 추후에 개편될 교과서에서도 레퍼토리의 변화는 거의 없이 수록될 것으로 보인다.⁴⁾ 따라서 현재의 분석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추후에 이루어질 교과서 개편에 주요한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서는 작품의 본문이나 배경 설화에서 노인이 등장하는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분량의 문제로 인해 일부만 수록된 작품의 경우에도 미수록분을 염두에 두면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시가 작품의 경우 해당 작품이 없는 고려속요와 가사를 제외하고 고대 가요와 향가, 시조로 장르를 구별하며, 산문은 설화와 소설, 가면극, 수필 장르로 구별한다.

- 2) 참고로 각 교과서의 대표 저자와 출판사는 다음과 같다. 강황구 외(상문연구사), 구인환 외(교학사), 김병국 외(케이스), 김윤식 외(디딤돌), 김창원 외(민중서림), 박경신 외(금성출판사), 우한용 외(두산), 조남현 외(중앙교육진흥연구소), 한계전 외(블랙박스), 한철우 외(문원각), 홍신선 외(천재교육), 권영민(지학사), 김상태 외(태성), 김대행 외(교학사), 박갑수 외(지학사), 박호영 외(형설출판사), 오세영 외(대한교과서주식회사), 최웅 외(침문각). 모두 '상'과 '하'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 3) 이후에 고시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가 새로 편찬되어 2012년부터 학교에 보급되었다. 추후에 이들 교과서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지만, 일별해 본 바로는 고령사회 대비라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심사를 기준으로 볼 때 앞에서 제시한 교과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노인의 형상은 다음 연구물을 참조할 수 있다. 김양진(2005), 『한국 야담문학에 나타난 노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30호, 한국노인복지학회 : 김양진(2005), 『한국고대설화 속의 노인 이미지의 특성 연구』, 『새얼어문논집』 17호, 새얼어문학회 : 김양진(2006), 『민속극에 나타난 노인 연구』, 『새얼어문논집』 18호, 새얼어문학회 : 김양진(2007), 『〈출향전〉을 통해 본 노인의 현실지향적 모습』, 『새얼어문논집』 19호, 새얼어문학회 : 윤영옥(2001), 『시조에 나타난 노인의 모습』, 『한민족어문학』 39호, 한민족어문학회.

II. 고령 사회 친화적 문학교육의 정당성

모든 글에는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이 담겨 있다. 특히 문학은 가치 있는 경험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가치 있는 경험은 흔히 문학의 내용 요소로 규정된다. 다른 예술 장르와 문학의 차이를 구별해 주는 언어가 형식 요소라면 가치 있는 경험은 그 언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과정에서 문학에 담긴 인간의 다양한 경험 중 어떤 내용의 경험을 교체화해야 한다는 명시적 언급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교과서에서는 가급적이면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작품을 선정하고 있다. 나아가 작품을 읽은 후에 뒤따르는 학습 활동을 통해서도 경험적 요소에 대한 확인과 평가 활동을 동반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본질적 논리를 바탕으로 드러나는 것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리는 곧 고령 사회 친화적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문학교육적 대응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문학교육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할 필요성은 일차적으로 교육의 이념과 목적에 의해 지지된다. 가장 최근에 공시된 교육과정 상 현재의 공교육은 다음과 같은 인간상을 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이러한 인간상은 이념 수준에서 제시된 것이다. 이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 항의 '다원적 가치'와 '라' 항의 '공동체 발전'이다. 다원적 가치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의 우리 공동체가 가치 다원화의 경향을 보이는 데서 오는 필연적인 교육적 대응으로 나온 것이다. 하나의 공동체라고 해서 하나의 단일한 가치를 지닐 수 없음을 명백하다. 다양한 가치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긴장과 갈등이 있게 마련이지만,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치 사이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요구된다. 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의 정신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다음과 같은 학교급별 목표로 구체화된다. 중학교에서는 네 가지 중에서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와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라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이들 항목들은 고등학교에서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와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라는 항목으로 각각 변주된다. 이러한 목표 항들은 다문화 사회나 가치 다원화 사회의 도래를 염두에 둔 것이며,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민주시민' 혹은 '세계 시민'이라는 핵심어로 집약한 것은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이른바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제시된 여러 가지 항목들은 이를 위해 모든 교과에서 지향해야 할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의 일환으로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이 설정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이라는 항목은 2007년에 고시된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⁵⁾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5)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의 국민기본공통 교육과정의 '운영' 부분에서는 다음 사항을 '범교과적 학습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 민주 시민

이상의 논의가 고령 사회 대비 교육에 대한 문학교육의 교육과정적 정당성에 관한 것이라면, 국어교과학의 자체적인 논리로서도 그 정당성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 국어과는 성격상 듣기·말하기·읽기·쓰기와 같은 언어활동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활동에서 내용이 제거된 형식적인 언어 개념은 현실에서 성립될 수 없다. 언어는 필연적으로 기의(signifié)를 지니게 되므로,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의'의 다른 이름이 바로 경험이다. 학습자들은 모든 담화 양식에 담겨 있게 마련인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단원 학습 목표와 무관하게 익히게 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주제는 그 경험을 압축한 것이다.

가령 '저출산·고령 사회'를 주제로 삼고 있는 설명문을 읽거나 쓸 때, 학습자들은 글의 형식이나 구조, 서술 방식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학습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은 본질적으로 윤리 교과나 사회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국어교과의 소관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언어가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한, 특정 주제에 관한 텍스트나 담화를 읽고 쓰면서 그 주제에 대한 경험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국어과에서 경험 범주가 별도로 설정되는 이유이다.

이와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국어과에서는 분단과 통일, 환경·생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 이 중에서 마지막 두 항목은 엄밀히 말해 주제 범주에 포함되기 어렵고, 굳이 따지자면 방법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태 문제 등 사회적 의제를 다룬 텍스트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며, 이들 의제를 화제나 주제로 삼아 말하기나 글쓰기 활동을 한다. 이런 점에서 국어과에서는 삼라만상을 모두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 유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⁶⁾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또한 현재의 학습자들이 의당 관심을 지녀야 할 사회적 의제의 하나로서 국어과의 교육 내용으로 포괄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고령 사회 친화적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문학교육이 기여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 중의 하나이다.

국어과에서 고령 사회 문제는 학습자들이 확보해야 할 경험의 폭을 넓히고 이에 대한 주제적인 태도를 형성해야 한다는 당위 차원에서 언어 자료로 제시되고 생산되는 과정에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점점 도래하고 있는 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 사회에 대한 접근은 태도 범주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국어교육에서 태도 범주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언어활동이 결국 참가자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경험 대상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국어 능력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태도는 필연적으로 평가 과정을 거침으로써 형성된다(김대행, 2002). 고령 사회에 친화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령 노인이 등장하는 작품을 읽은 후에 그 노인의 형상이나 노인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 혹은 작가의 시선에 대해 학습자가 비판적 사고를 통해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6)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대행(2002)와 류수열(2006) 참조.

III. 노인 형상 관련 학습 내용 분석

1. 고전시가 장르

1) 고대 가요

현전하는 고대 가요 세 편 중 노인과 관련된 작품은 <공무도하가>이다. 이 작품에는 물에 빠져 죽는 백수광부(白首狂夫)를 바라보는 아내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본 제재로 수록하고 있는 경우는 '천재교육(하)'의 1종뿐이다. 그나마 이 교과서에서는 학습 활동으로서 "배경설화를 참고하여 백수광부가 물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추리하여 말해보자."를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아마도 이는 백수광부의 정체에 대한 연구사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 그러나 하얗게 센 머리를 풀어헤친 광부의 형상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구체적인 정체는 알기 어렵다.

2) 향가

향가 중에서 노인과 관련된 작품으로는 <헌화가>를 유일하게 꼽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작품은 순정공의 아내 수로부인이 아주 높다란 절벽 위에 피어 있는 철쭉꽃을 탐내자 소를 끌고 지나가던 노인이 꽃을 꺾어다 바치면서 부른 노래이다. 이 노래와 관련해서도 수로부인과 노인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논란이 있다. 두 인물을 각각 자태와 미모가 빼어난 귀부인과 무명의 평범한 촌로로 보기도 하고, 성스러운

7) 김성기(1986) 참조. 이 노래와 관련된 선행 논의에서는 백수광부의 정체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를 풀어헤친 채 술병을 들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점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백수광부를 무당으로 보는 해석이 우세한 가운데, 역사적인 시각에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다가 불신을 당하고 권위를 잃은 무당으로 보기도 한다. 또 술병을 들고 있었다는 점이 착안하여 백수광부를 주신(酒神)으로 보는 신화적 해석도 있다.

꽃을 매개로 서로 화합하는 초월적인 존재로 보기도 하는 것이다.⁸⁾ 교과서에서는 이 작품을 주로 『삼국유사』의 '수로부인조'에 함께 기록된 <해가(海歌)>와 함께 다룬다.

'두산동아' 교과서에서는 학습 활동에서는 노인을 다루지 않고, '감상의 심화'에서 <해가>를 언급하면서 "두 사건을 해결하는 인물은 모두 노인"임을 강조한다.⁹⁾ 그러나 노인의 역할이나 구체적인 형상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 채 그 결과가 노래로 나타난다는 점만 언급하는 데 그친다.

이에 비해 '태성(하)' 교과서에서는 노인의 형상이 비교적 집중적으로 조망되고 있다. 우선 '작품의 수용'이라는 꼭지에서 꽃을 꺾어 바치는 사람이 잘생기고 날렵한 젊은이가 아니라 왜 하필 나이 지긋한 노인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설화와 노래가 신라인의 미의식을 잘 드러내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그가 노인이기에 <헌화가>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또 그의 낭만적인 감정이 스스럼없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 활동을 통해서도 노인에 맞추어진 초점을 유지한다. 학습 활동 중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내용 학습 2. 만약 여러분들이 수로 부인이었다면 노인의 그 제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상상해보자.
- 적용 학습 3. 순정공과 수로 부인이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을 때, 바다의 용이 나타난 부인을 납치했다. 순정공은 땅에 주저앉아 있을 뿐 아무 대책이 없을 때, 한 노인이 나타나 부인을 찾을 방법을 알려주

8) 박노준(1982)이 전자를, 이도흠(1992)과 조태영(1999)이 후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9) 수로부인 설화는 『三國遺事』 紀異條에 실려 전한다. 이 설화와 관련해서 두 노래의 인물에 대해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꽃을 꺾어 바친 <헌화가>의 노인과 용에게 납치된 부인을 구해준 <해가>의 노인을 동일인으로 해석한다.

었다. 못사람의 말은 쇠 같은 물건도 녹인다고 말하면서 그 노인이 일러 준 방법은 무엇인가? 노인이 제시한 방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자.

- 토의·토론 4. 다음 작품(서정주의 <노인 현화가>)은 신라의 '현화가'에 대한 시인의 감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시인은 노인이 꽃을 꺾어 드리겠다고 제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로 의견을 이야기 해보자.

'내용 학습 2'는 표면상 수로 부인을 주체로 내세우고 있지만 꽃을 건넨 사람이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초점은 노인이 된다. 교과서의 '수용의 길잡이'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꽃을 꺾어 바친 인물이 젊은이가 아니라 노인이기에 꽃을 받는 것이 결코 어색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 학습 활동은 수로 부인이 순순히 꽃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노인은 무성적(無性的) 존재로 간주된다. 노인과 수로부인은 기본적으로 남녀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꽃이 그 관계의 매개로서 서로 수수될 수 있었던 것은, 노인이 이미 남성성을 잃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토의·토론 4'의 학습 활동에서는 이와 상반된 관점에서 노인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었다. 여기에서는 우선 서정주가 <현화가>를 재해석하여 창작한 <노인 현화가>를 제시하면서 노인의 현화 행위에 대한 시인의 시선을 파악하라는 요청을 한다. 서정주의 <노인 현화가>는 노인이 수로 부인의 미모와 자태에 마음을 뺏겨 나이드 잇은 채 꽃을 매개로 하여 친밀해지고자 하는 욕망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¹⁰⁾ 그런 면에서 앞에서 제시된 학습 활동과 선명한 대비

10) 다음은 이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몇 구절이다. "...머리 흰 늙은이가 / 문득 그의 앞을 지나는 어떤 남의 안사람을 보고 / 한바탕 건네인 수작이다.", "꽃이 꽃을 보고 웃듯이 하는 / 그런 마음씨밖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었다.", "...그 풍기가 / 그들의 입과 귀와 눈을 적시면서 / 그들의 말씀

를 이룬다. 이는 한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배치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적용 학습 3'은 노인이 어떤 문제 사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두산동아' 교과서에서 노인의 역할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간 점과 대비되기도 한다.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추리하라는 요청으로 나아가고 있기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는 노인을 지혜의 소유자로 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전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구삭금(衆口鑠金)'이라는 일상화된 지혜에 기대어 노래까지 전수한 노인의 비범한 능력에 초점을 맞춘 활동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3) 시조

시조는 고려 말에 형식이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시조사에서 두드러진 양상 중의 하나는 전대 문학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탄로가(嘆老歌)' 계열의 노래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春山에 눈 노건 바람~>이라는 작품과 함께 <흐 손에 막디 잡고~>가 꼽힌다. '금성' 교과서에는 이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나, 학습 활동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다만 작품 수용을 위한 안내에서 "'늙음'이라는 추상적인 인생길을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길로 전환하고 세월의 흐름을 가시와 막대기로 막으려는 발상이 재미있다."라고 평설을 붙여 놓았다. 결과적으로 노화를 막아보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 본성적 욕망이나 세월의 흐름에 대해 거스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 주목하기보다 시적 발상과 표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탄로가는 아니지만 농암 이현보의 시조 <巖岩에 올라 보니~>는 '老眼이 猶明이로다'라는 구절로 유명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변화를 거부

과 수작들을 적시면서 / 한없이 친한 것이 되어 가는 것을...",

할 수 없는 인간사와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자연을 대비시키면서 유배까지 당했던 벼슬살이로부터 물러나와 귀향한 감회를 읊은 것이다.¹¹⁾ ‘민중서림’ 교과서에서는 바로 이러한 작품의 특성을 부각시켜 ‘인사와 산천을 대비시킨 이유’를 추리하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했다.¹²⁾

2. 고전산문 장르

1) 설화

고대부터 구전되어 오던 설화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문자로 정착되어 책으로 엮어지게 된다. 현전하는 설화 작품들 중에서 ‘노인’이 인물로 등장하거나 노인에 준하는 이미지가 나타나는 작품이 교과서에 수록된 경우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시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설화에서 노인은 주로 지혜의 소유자로 자주 등장한다. 신비적인 도인, 구원자이자 양육자로 변주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시가에서는 잘 드러나는 않는 형상으로서 효행·봉양의 대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문학 교과서의 학습활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가령 조신 설화의 경우 주인공 조신이 꿈을 깨고 깨달음을 얻는 부분에서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에서 성숙한 인간이나 깨달은 자의 모습으로서 인물을 노인으로 형상화하여 활용하고는 있지만 학습활동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는다.

11) 이현보는 그가 죽기 2년 전에 쓴 ‘생일가’의 병서에서 그 만년의 거취와 일락의 자취를 자랑하며 〈효빈가〉, 〈농암가〉, 〈생일가〉에 나타나 있다고 했다. 즉 농암은 문학생활을 통해 만년에 삶에서 가장 소중한 몇몇 계기 및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했던 것이다. (성호경, 2002)

12) 이 학습활동은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연구에서는 은퇴 후의 문학 활동, 또한 그때의 노래의 기능과 성격에도 주목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만하다.

그런데 하나 눈길을 끌만한 것은 ‘두산동아’ 교과서에 수록된 신라 시대 설총이 지은 〈화왕계〉이다. 이 작품은 고려시대 김부식의 『삼국사기』 열전(列傳)에 실려 전하는데 작자인 설총이 우의적(寓意的)인 표현을 통해 신라 신문왕에게 풍간(諷諫)을 하기 위해 지어진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박노춘, 1971). 화왕, 백두옹, 장미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는 각각 왕, 충신, 간신의 비유이며 바로 백두옹이 할미꽃으로 노인의 이미지를 지니는 인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¹³⁾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습 활동을 구성하였다.

- ‘화왕계’는 왕에게 통치자의 바른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장미’와 ‘백두옹’의 원관념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이는 내용 학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유된 대상의 원관념을 이해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작품에서 ‘백두옹(白頭翁)’은 ‘장미’와 대조되는 인물이다. 작품에 묘사된 바에 의하면 장미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외양적 면모로 임금에게 아첨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와는 반대로 백두옹은 걸모습은 늙고 초라하여 볼품 없으나 내면의 진실함을 갖추고 있으며 임금에게 잘못된 행동을 꾸짖고 깨닫게 하는 충고를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지혜롭고 강직한 인물로 그려진다(오상태, 1991). 이는 ‘걸모습은 초라하고 나약하지만 내면

13) 〈화왕계〉는 『동문선』에 『飄王書』로 실려 있으며 『風神文王書』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이 작품을 신문왕(神文王)의 위정(爲政)에 대한 깊은 우의를 지닌 풍자적 작품으로 보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등장인물의 유형을 서술하면서 오상태(1998)에서는 ‘미인(美人) 간신(奸臣)’ 장미와 대조되는 ‘지사(志士)’ 백두옹이라 했고, 손정인(1991)에서는 인물이 속한 공간에 주목하여 ‘현실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간신(奸臣)의 인간상 장미’와 ‘이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충신(忠臣)의 인간상 백두옹’으로 대조하여 설명했다.

이 성숙한 지혜로운 인물'이라는 노인에 대한 당대인들의 관습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학습활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인이 등장하는 설화 작품으로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작품이 '디딤돌'과 '블랙박스' 교과서에 수록된 <바리공주> 설화이다. 바리공주는 흔히 알려져 있듯이 버려진 공주를 뜻하는 말이다. 주인공 바리공주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비리공덕 할비와 할미에 의해 구출되어 양육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노인들은 서사 구조상 매우 중요한 '구원자·양육자'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부성·모성적 사랑의 이미지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활동에서 이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2) 소설

서사 문학을 대표하는 장르인 소설 문학에는 민중의 삶이 언어 형식으로 고스란히 반영되어 허구를 통해 형상화되어 있다. 자연스레 대가족을 이루고 살던 우리나라의 풍토에 기인하여 소설작품 속에는 노인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주 등장하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교 사상의 근본은 '효'이며, 오륜에서도 '장유유서(長幼有序)'라 하여 어른(노인)은 '봉양과 존경의 대상'이라는 사고가 옛 사람들의 삶에 뿌리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봉양과 존경의 대상으로서 노인은, 달리 말하면 사회 활동에서 이미 중심으로부터 주변부로 밀려난 존재라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인은 소설 문학에서 중심인물로 형상화되기보다는 주변인물로 조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결국 중심적 인물과 중심적 갈등 및 사건을 다루게 되는 것이 소설 교육의 일반적인 특성이라는 점, 그리고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교육과정과 학습 목표의 통제 아래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덜한 노인을 학습 활동에서 직접 다룬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그런데 노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학습 활동에서 이를 초점화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가령 7차 국민기본공통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구운몽>에서는 노승(老僧) 육관대사가 작품의 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¹⁴⁾.(설성경, 2002) 그럼에도 그 인물의 성격이나 역할과 관계하여 학습 활동에서 다루지는 않는다. 이는 <구운몽>을 수록하고 있는 '청문각' 문학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8종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소설 작품에서 노인은 상당히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서사적 흐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나마 교과서 수록 소설 작품들 중 노인 인물로 비교적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숙향전>의 마고할미나 혹은 <유충렬전>의 백룡사 노승은 성격이나 역할 면¹⁵⁾에서 충분히 학습활동에서 다룰 법함에도 교과서 지면상의 한계로 인해 전체 작품이 실리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학습 목표와 무관한 이유에서인지 학습 활동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반면에 '지학사(박)' 교과서에서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에서 노인이라 할 수 있는 유한림의 고모인 두씨 부인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작품에서 두씨 부인은 조카며느리인 사씨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

14) 물론 구운몽의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과 이견이 있어왔다. 이는 작품에 담긴 사상과 주인공의 모습에 주목하여 성진의 측면에서 다른 불교적 주제설과 양소유의 측면에서 다른 유교적 주제설, 그리고 둘을 아울러 현세와 내세의 두 가지 행복을 모두 추구하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설성경은 작품의 구조와 연관지어 <구운몽>이 <금강경>의 지혜를 서사화한 것이라 보았다. 이때 육관대사는 설법의 주체로서 주인공이 작품의 주제인 <금강경> 사상의 핵심을 깨닫게 하는 위치에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15) 영웅 서사의 구조에서 구원자·조력자 모티프는 하나의 단계로 상정될 만큼 이야기 전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유형은 신격의 이미지를 가진 노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주인공인 영웅이 등극(登極)하기까지 위기에서 구해주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르침이나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주는 포용력 있고 자애로운 조력자의 역할과 함께 젊은 인물들의 지혜롭지 못한 판단에 조언을 해줄 정도의 사리분별력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이금희, 1986). 또한 서사의 흐름상 그 비중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지학사(박)' 교과서의 <사씨남정기> 학습 활동에는 "2. 교사를 맞이하는 문제에 대한 태도로 보아 두 부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며 학습자들이 두씨 부인의 역할에 주목하도록 한다. 소설에서 인물의 역할은 또한 인물의 성격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은 이 활동을 통해 두씨 부인 역시 유씨 집안의 한 어른으로서 자애(慈愛)와 지혜를 겸비한 노인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된다.

3) 수필

일반적으로 작가의 사실적 경험을 다루며 교술적 성격을 띠는 고전 수필의 하위 갈래로는 '설(說)'류나 '기(記)'류 등을 꼽을 만하다. 고전 수필 문학 작품은 18종 문학 교과서에서도 다양한 작품들이 두루 다루어지고 있는데 노인이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작품으로는 조선 초에 지어진 '주몽설'이 대표적이다. 주몽은 세상과 삶의 이치를 간파하고 그 속에서 증용을 추구하는 탈속적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현실적 관점에서 보잘 것 없는 한갓 벋사람에 불과하지만 그 내면은 인생의 지혜를 깨달은 노인의 형상을 지닌 비범한 인물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학사(김)'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다음에 제시된 주몽의 말을 통해 형상화 되고 있는 세상살이의 의미를 추리해보자."
- 다음 중 주몽이 지니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와 일치하면 ○표, 일치하지 않으면 ×표를 해보자. 그리고 자신이 거기에 동의하면 ○표, 동의하지 않으면 ×표를 해보자.

이 중에서 앞의 활동은 작가가 주몽을 통해 전달하려는 인생의 교훈에 학습자들이 접근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후자는 주몽의 지혜를 학습자들의 삶에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우선은 주몽이 던져주는 삶의 지혜가 오늘날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 전제는 달리 말해 주몽이 이 시대에도 수용될 수 있는 '시대 보편적 현자(賢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앙교육'의 교과서에서도 작가가 주몽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인 작품의 주제를 "2. 주몽의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주몽이 부른 다음 노래의 의미를 해석해보자."라는 학습활동에서 주몽이 혼란한 세상에 던져주는 지혜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어서 "3.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주몽의 주장을 평가해 보자."라고 제안하여 고전적 지혜의 현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도록 권한다. 이러한 내용도 앞의 교과서에서 다른 맥락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는바, 노인의 지혜로움과 그가 주는 교훈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조선 후기 내간체 수필의 대표작으로 잘 알려진 <규중칠우쟁론기>에서는 바느질 도구인 골무를 의인화한 감토탈미라는 노인 형상이 등장한다.¹⁶⁾ 제목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규방의 바느질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서로 자신의 공치사를 내세우고 자랑하며 다룰 때, 감토탈미는 싸움을 중지시키고 규방 주인에게 사과하는 어른스러운 언행을 보여준다.

16) 규중칠우쟁론기에서 감토탈미에 대한 논의는 인물의 행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정진권(1984)은 작품의 풍자성에 근거하여 현실에 잘 순응하고 계산에 밝은 인물로 보았으나 이에 반해 김혜정(2011)은 기존 논의를 재고(再考)하며 연륜과 지혜가 묻어있는 의젓함으로 다른 인물들을 감싸고 변함없는 우정과 확신을 보여주는 인물로 본다. 본고는 후자의 논의를 따른다.

감토 할미 머리를 조아리며 이르되,

“젊은 것들이 망녕되어 생각이 없는지라. 저희들이 재주 있으나 공이 많음을 자랑하여 원망을 하여 대니 마땅히 곤장을 칠 만하되, 평소의 깊은 정과 저희 조그만 공을 생각하여 용서하심이 옳을까 하나이다.”

여자 답하여 이르기를,

“할미 말을 좇아 용서하리니, 내 손부리가 성한 것이 다 할미 공이라. 께어차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니, 비단주머니를 만들어 그 가운데 넣고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니, 할미는 머리를 조아려 사례를 표하고 칠우는 부끄러워하며 물러나니라.

여기에서 노인의 인물됨이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아닌 어른으로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는 '망녕되어 생각 없는 젊은 것들'과는 대조되며 젊은이들의 과오에 책망을 가하고 그들의 반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정도의 권위를 지닌 인물로 그려진 것이다(김혜정, 2011). 여기에도 노인의 전통적인 전형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성숙함과 연장자로서 권위'로 요약할 수 있다. 감토할미의 언행과 관계하여 '디딤돌'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은 학습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 이 작품에 등장하는 감토할미는 다른 벼에 비해 규중 부인의 충애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토할미의 됨됨이나 처세를 바탕으로 공동체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세인지 말해 보자.

이 활동은 학습자들이 노인 감토할미가 규중 부인을 충애를 받고 있는 언행을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여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오늘날에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는 데에 이르도록 한다. 당연히 이러한 활동에는 역시 '성숙한 인간'으로서 노인 이미지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4) 민속극

탈춤, 인형극을 위시한 민속극에서도 노인은 자주 등장한다. 인형극

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꼭두각시놀음>은 탈춤인 <봉산탈춤>의 7과장인 미알과장과 인물 구성의 측면이나 갈등과 사건의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하며 두 작품 모두 노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 작품들에 등장하는 노인들은 앞에서 다뤘던 작품에서 나타난 노인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앞에서 분석한 작품들의 노인들처럼 지혜로움과 인덕을 겸비한 존경의 대상인 노인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회화화되고 추락된 유랑인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중앙' 교과서의 <꼭두각시놀음>에는 “2. 이 글에 나타난 '박척지'의 언행을 비판하기에 적절한 경구나 속담들을 찾아보자.”에서 보듯이 중심인물인 노인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확인되며, 박척지와 꼭두각시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들을 통해 주인공 스스로를 회화화시켜 풍자와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파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봉산탈춤>의 7과장인 '미알과장'에도 나타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인 노부부 영감과 미알은 <꼭두각시놀음>의 노부부 박척지와 꼭두각시와 매우 닮아 있으며 역시 회화화의 대상이 된다. '미알과장'에서는 미알·영감 사이의 갈등과 노인 미알·젊은 덜머리집 사이의 갈등을 눈여겨 볼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횡포에서 비롯된 모순을 비판하는 것이고, 후자는 미알로 대표되는 구세대와 덜머리집으로 대표되는 신세대의 갈등에서 신세대가 승리하고 구세대가 밀려나게 된다는 해석을 주목할 만하다(조동일, 1979). 이 중 후자의 내용은 디딤돌 문학교과서의 학습활동에도 반영되어 있다.

- 시야 넓히기 : '미알춤'에서 '미알'과 '덜머리집'을 늙음과 젊음의 대립으로 볼 때, 농업을 중시했던 전통 사회에서 사건의 진행을 미알의 패배(또는 덜머리집의 승리)로 마무리한 것에는 어떤 의식이 반영되었는지 토의해 보자.

'미알 과장'에서 노인 미알은 더 이상 이전 시대의 문학 작품에서 그

려진 것과 같은 존경과 봉양의 대상으로서 노인, 지혜와 슬기의 상징으로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저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전통적 맥락에서 여자로서의 존재 의의라 할 수 있는 잉태와 생산 기능을 상실하여 결국 시대의 변화에 의해 밀려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로 형상화되었을 뿐이다. 문학이 어떤 형태로든 현실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대의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노인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이해하도록 학습활동이 구성된 것이다.

IV. 노인 형상 관련 교수-학습 내용 구성 방향

이제 이상에서 진술한 분석 결과에 대해 평가를 가해 보기로 하겠다. 전체적으로 고전문학에서 노인 관련 학습 내용은 매우 빈약한 편이다. 우선 노인이 등장하는 고전문학 작품이 수록된 경우가 많지 않다. 게다가 노인이 등장하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노인의 형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을 선택한 경우도 드물다. 또한 노인의 형상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노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학습 활동을 구성한 경우도 매우 희박하고 빈약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서서는 무엇보다 교육과정 자체에 범교과 학습 주제의 항목으로서 고령 사회 대비 교육이 결락되어 있었던 사정을 꼽을 수 있다. 물론 교육과정 상의 범교과 학습 주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지닌 일종의 권고에 가깝다. 따라서 반드시 이와 관련된 주제를 포함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검정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편찬자 입장에서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사정이 고령 사회와 관련된 작품과 이에 따른 학습 활동에 대한 편찬자들의 관심을 약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장르별, 작품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미약하게

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1. 고전시가 장르

먼저 고대 가요인 〈공무도하가〉에서는 물에 빠져 죽는 노인이 등장한다. 앞에서 밝힌 대로 이 인물은 정체가 분명하지 않다. 다만 문학 연구자들이 발휘한 역사적·신화적 상상력의 산물로서, 그가 실패한 무당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뿐이다. 요컨대 권능을 상실하거나 사회적 기여 가능성이 가로막힌 채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인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상상적 해석이 타당하다면,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의 형상이다. 따라서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사회적 역할을 다한 노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을 성찰해 보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가 중에서 배경 설화에 노인이 등장하는 유일한 작품인 〈현화가〉에서는 비교적 노인의 형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살핀 대로 '태성' 교과서에서는 노인을 성적 범주를 뛰어넘는 무성적 존재와 지혜의 소유자라는 두 가지 형상으로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작품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존중한 결과이기도 하다. 나아가 노인에 대한 관념을 다층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습 활동이 매우 유연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두 가지 관점에 근거한 학습 활동이 개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종합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학습 활동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시조 중에서 우탁의 〈훤 손에 막더 잡고~〉는 자연의 질서가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인간의 생로병사가 모두 자연의 질서일 따름이지만, 이에 대응하여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하여,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인식으로 종결되는 시상의 흐름을 보여준다. 흔히 늙음을 노래하는 사람은 비애와 감상에 젖기 쉬운 데 반해

이 작품은 그런 구차스러움 없이 늙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달관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탄로가>를 수록하고도 '늙어감'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대한 평가 활동을 결여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하겠다.

또한 이현보의 <巖岩에 올라 보니~>를 실은 교과서에서는 은퇴 이후의 삶은 초점화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 활동이라는 생업을 마감하고 물러나와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한 인간의 생애사적 전환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노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사 작품 중에서 노인의 형상을 정면으로 다룬 것은 거의 없다. 다만 박인로의 <선상탄>에서 자신의 현재적 모습을 '늙고 병든 몸'으로 규정하는 대목이 있어 주목된다. <선상탄>은 작자가 임진왜란 직후, 통주사(統舟師)로 부산에 와서 태평성대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왜적에 대한 적개심과 우국충정을 읊은 작품이다. '늙은 군인'으로서 국방에 종사하는 자부심도 녹아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18종 교과서 어디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선상탄>과 함께 노인의 형상이 부분적으로나마 등장하는 가사 작품으로는 <농가월령가>를 꼽을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정월령에 있는 다음 구절이다.

늙으니 근력(筋力) 엷고 힘든 일은 못 하야도, 낮이면 이영 녀고 밤의는 식기 꼬아, 썩 맛쳐 집 니우니 큰 근심 더럿도다. 실과(實果) 나모 벗웃 짜고 가지 스이 돌 씨오기, 정조(正朝)날 미명시(未明時)의 시험(試驗)조로 향야 보소, 머나리 닛디 말고 송곡주(松菊酒) 밋향여라. 삼춘(三春) 백화시(百花時)의 화전 일취(花煎一醉)향야 보즈, 상원(上元)날 달을 보야 수한(水旱)을 안다 하니, 노농(老農)의 징험(徵驗)이라 대강은 짐작(斟酌)느니

노인이 농사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은 부동의 사실이나, 서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가치를 신체를 활용하는

노동과 지혜를 이용하는 교시(敎示) 양면에서 찾고 있다. 논농사를 제외한 '이영 율기', '새끼 꼬기', '지붕 이기', '과실수의 꽃 따기', '가지 사이에 돌 끼우기' 등을 노인에게 알맞은 노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달을 보고서 홍수와 가뭄을 가늠할 수 있는 안목의 소유자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안목은 기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농경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바, 축적된 경험에서 생성된 지혜의 가치를 농경 문화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드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도 18종 교과서 중 어디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만일 지혜의 소유자라는 노인의 형상에 초점을 맞춘다면, 농경문화적 특수성을 초월하여 모든 공동체에서 그 지혜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주로 '국어' 교과서에 실리곤 하는 정철의 <관동별곡>에는 명실상부한 지혜의 소유자로서 노인이 등장한다. 금강산 등정을 끝내고 하산하는 길에 화자는 목민관으로서 선정을 베풀어야 하는 책무감과 신선처럼 살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러다 소나무 뿌리를 베고 잠이 들게 되고, 꿈속에서 한 노인을 만난다. 노인과 더불어 술잔을 기울이던 화자는 이 노인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

이 술 가져다가 四海(스헤)에 고로 논화 億萬(억만) 蒼生(창스)을 다 醉(취)케 밍근 後(후)의 그제야 고터 맛나 또 흥 잔 ㅎ찾고야.

용으로 대표되는 정신분석학적 설명에 따르면 이 노인은 동화나 민담의 주인공들을 절망적인 곤경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신령스러운 할아버지는, 현실의 우리가 꿈속에서 만나는 '지혜의 노인(the wise old man)'이 인격화된 것이라 한다. <관동별곡>의 이 노인 또한 전형적인 지혜의 노인으로서 선택의 갈등을 겪고 있는 화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화자는 그 해결책을 따라 자신의 인생행로를 결정한다(김병국, 1995 : 52-53).

만일 이 작품도 고령 사회 친화적 문화 환경 조성을 겨냥하여 학습 활동을 구성한다면, 바로 이 지점에 착목해 볼 수 있다. 무릇 모든 공동체에서 집단 무의식의 차원에서 노인이 지혜의 소유자로 등장하는 보편적인 원인을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단지 허구로 이루어진 문학 작품이 의도적으로 가공한 결과가 아니라, 노인이 지혜를 발휘하여 개인적·공동체적 문제 사태를 해결하는 실제적 삶으로부터 유추된 문학적 형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전산문 장르

한국 고전산문 작품에서는 운문에서보다 노인의 형상이 자주 등장한다. 고전 산문은 갈래 그 자체가 지니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서사적 전개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이때 그 중심에는 항상 인물이 놓이게 된다. '남녀노소'라는 일상적 단어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지칭하는 데 쓰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는 나이는 성별과 더불어 개인의 정체성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하면 젊은 사람들과 더불어 노인이 사회 구성원의 한 축을 이룬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현실을 반영하게 마련인 문학에도 노인은 하나의 범주적 캐릭터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될 점은 당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형성된 작가의 인식에 의해 인물이 가공된다는 것이다. 고전 산문 속 노인의 이미지는 고대의 설화부터 조선 후기 이전의 소설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관되게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것은 바로 육체적으로 나약하고 걸모습은 초라하지만 내면과 정신은 성숙한 인간의 모습으로 비쳐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조선 후기의 문학 양식들에는 노인이 회화화의 대상이 될 정도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노인에 대한 인식도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이 지점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문학교육의 대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조선 후기를 기점으로 하여 문학 작

품 속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 다음 노인에 대한 인식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문학교육 방안을 상정해 보는 것이다.

문학작품에서 조선후기 작품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자본주의의 맹아가 싹트던 조선 후기의 시대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를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발견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노인은 육체적인 한계로 당연히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상황은 앞서 살핀 <봉산탈춤>의 '미알과장'에서 잘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미알이 버림받고 회생당하게 되는 것은 단지 늙었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자본주의가 본격화된 오늘날의 노인들이 처한 상황과도 매우 흡사하다. 이 점에 착목하면 민속극에서 나타난 노인의 모습과 오늘날 노인이 처한 상황의 비교를 통해서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제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작품과 부정적으로 나타난 작품을 나누어 차례대로 학습 활동을 평가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조선설화>에서 조신의 각몽 장면에서 그는 세속적 욕망이 넘치는 젊은 조신이 아닌 늙은 조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꿈속 이야기는 인생의 축소판에 해당하므로 인생의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후 성숙하고 깨달은 한 인간이므로 노인으로 형상화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를 문학교육적인 구도로 재구성한다면, 하룻밤 꿈 사이에 노인으로 그려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노인 형상이 무엇을 표상하는지를 탐구하도록 할 수 있다. 거기에는 당연히 지혜 혹은 깨달음이라는 자질이 결과로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화왕계〉의 경우 작품의 우의성에만 주목하여 백두옹의 원관념을 찾는 데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역으로 왜 백두옹으로 비유되었을까 하는 고민을 통해서 '지혜의 상징'으로서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 시대의 스승과 인생의 멘토로서 노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백두옹은 왕에게 서슴없이 지혜가 담긴 충간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버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이해관계만 따져 뒷사람에게 아첨하며 거짓되게 행동하는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줄 수 있을 것이다.

〈바리공주〉의 '비리공덕 할비와 할미'는 구원자이자 양육자로 역할하는데,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속향전〉의 '마고할미'와 함께 다루어 부성과 모성의 상징¹⁷⁾으로서의 노인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현대작품들에게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 서정주의 시들에 나오는 여성의 모성 이미지와도 연결시킬 수 있다(오탁번, 1994).¹⁸⁾

〈주몽설〉은 오늘날의 양극화되어 혼란스런 사회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사는 삶을 주제로 하고 있다. 곧 옛사람 주몽이 주는 지혜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스승과 멘토의 이미지로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교육적 방법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규중칠우쟁론기〉의 경우에는 공동체의 성숙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사회 원로로서 노인의 이미지를 교육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 사회 친화적 문화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노인의 형상은 대체로 긍정적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

17) 이와 관련하여 성현경(1994)에서는 〈속향전〉을 도식화하여 설명하면서 '마고할미'를 신선이자 양부모, 대리모로 구분하였다.

18) 서정주의 시에는 유난히 여성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하며 이와 관련한 연구물도 많다. 그 중 오탁번(1994)에서는 할머니의 이미지를 원초적 대모성에, 누님의 이미지를 현대적 모성에, '눈썹'의 이미지를 초월적 모성에 대한 비유라고 하였다.

다는 점이 주목된다. 〈공무도하가〉에서처럼 사회적 소임을 다하고 죽음으로 귀결되는 인물이 없지는 않지만, 대체로는 지혜의 소유자이면서 공동체적 역할 수행자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장유유서와 같은 유교적 윤리의 영향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한국 고전문학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고령 사회 친화적 문화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고무적인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¹⁹⁾

IV. 결론

이 연구는 고등학교 수준의 문학교육에서 고령 사회 친화적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 구안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18종에 실린 고전문학 작품에서는 노인 관련 학습 활동이 매우 빈약한 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한국 고전문학에서는 노인의 형상을 대체로 긍정적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 고전문학의 노인 형상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고령 사회 친화적 문화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고무적인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실현 가능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고령 사회 친화적 문화 환경 조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시적 맥락보다는 문학교육이라는 제한적인 영역에서 접근했기

19) 서양의 경우에도 지혜에 초점을 맞추어 노년의 삶을 예찬하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참고로 약 2,000년 전 로마의 키케로가 노인들을 배의 키잡이에 비유하면서 그 지혜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젊은 선원들이 하는 일은 하지 않지만, 키잡이가 하는 일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네. 큰일은 체력이나 민첩성이나 신체의 기민성이 아니라, 계획과 명망과 판단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네. 그리고 이러한 자질들은 노년이 되면 대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난다네."(키케로, 천병희 역, 2005 : 31)

때문에 뚜렷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노인이 작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일정한 한계로 작용한다. 그 편차에 따라 노인 형상도 얼마간은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늙어가는 여성들의 소외감이나 병환에 대한 탄식을 다룬 규방가사류, 나이 들에서 얻는 행복을 담고 있는 회혼가류 작품, 젊은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이 등장하는 대하소설 등에서도 노인의 형상을 발굴하여 다루지 못한 것은 추후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한국의 고전문학을 활용하여 고령 사회 친화적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작품의 내용과 이에 기반한 학습 활동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고전문학에서는 대체로 노인의 형상을 지혜의 소유자로 표상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용이한 조건에서 이러한 목적은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당위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용이한 조건마저 무가치해질 수 있다. 그것은 교과서 편찬이 편찬자들의 문학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 검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제시된 여러 항목을 비교적 골고루 반영해야 한다는 실효성 있는 권고가 요청된다.

교과서 검정을 시행할 때 주요한 준거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초·중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이하 '검정 기준'으로 약칭함)이고 다른 하나는 '교과서 집필 기준'(이하 '집필 기준'으로 약칭함)이다. 2011년에 교육과정이 새롭게 고시됨에 따라 이 두 가지 준거가 새로 공포되어 있다.²⁰⁾ 또한 검정 기준과 집필

20) 두 문헌의 공식적인 명칭은 다음과 같다. 전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제2011-361호, '11.08.09)에 따른 초·중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고, 후자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국어과 교과서 집필 기준(교육과학기술부)이다.

기준에서는 공히 범교과 학습 주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특정 교과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주제도 있다. 가령 양성 평등은 가정과에서, 인권은 사회과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국어과의 경우 특정 주제와의 연관성이 강한지 약한지 판단할 수가 없다. 국어과는 특성상 특정한 방면의 주제보다는 담화나 텍스트의 여러 가지 형식이나 양상 자체를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제시된 여러 가지 항목을 일일이 의도적으로 배치하지 않고서는 일부 주제 항목이 결락되기 쉽다. 이는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할 주제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데 원인이 있지만, 반영의 의무를 편찬자의 자율성에 맡겨 두고 있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검정 기준이나 집필 기준에서 범교과 주제로 제시된 모든 항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못 박을 수는 없다. 편찬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조건에서는 '균형 있는 반영'을 권고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으로 보인다. 가령 환경이나 생태 관련 주제를 다룬 제재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고령 사회 관련 주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 식의 편향은 피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균형 있는 반영'을 권고한다면, 거의 모든 범교과 학습 주제를 골고루 반영하도록 하는 효과도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시민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이나 사회 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을 교육과정에서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국어교육이 단순히 도구 교과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한 시민 양성이란 교육 일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성격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그 성격을 교육과정에 명시한다면 고령 사회 대비 교육은 훨씬 더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고령사회(the aged society), 범교과적 학습 주제(cross-curricula learning topics), 문학 교육(literature education), 노인 형상(elders' figures), 지혜의 노인(the wise old man)

참고문헌

<자료>

강황구 외(2003), 문학(상)·(하), 상문연구사.
 구인환 외(2003), 문학(상)·(하), 교학사.
 김병국 외(2003), 문학(상)·(하), 케이스.
 김윤식 외(2003), 문학(상)·(하), 디딤돌.
 김창원 외(2003), 문학(상)·(하), 민중서림.
 박경신 외(2003), 문학(상)·(하), 금성출판사.
 우한용 외(2003), 문학(상)·(하), 두산.
 조남현 외(2003), 문학(상)·(하), 중앙교육진흥연구소.
 한계전 외(2003), 문학(상)·(하), 블랙박스.
 한철우 외(2003), 문학(상)·(하), 문원각.
 홍신선 외(2003), 문학(상)·(하), 천재교육.
 권영민(2004), 문학(상)·(하), 지학사.
 김상태 외(2004), 문학(상)·(하), 태성.
 김대행 외(2004), 문학(상)·(하), 교학사.
 박갑수 외(2004), 문학(상)·(하), 지학사.
 박호영 외(2004), 문학(상)·(하), 형설출판사.
 오세영 외(2004), 문학(상)·(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최 응 외(2004), 문학(상)·(하), 청문각.

<논문>

김대행(2002),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 10,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7-37.
 김병국(1995), 「가면 혹은 진실」,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출판부.
 김성기(1986), 「公無渡河歌의 해석」, 『한국 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김양진(2005), 「한국 야담문학에 나타난 노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30, 한

국노인복지학회, 287-307.
 김양진(2005), 「한국고대설화 속의 노인 이미지의 특성 연구」, 『새얼어문논집』 17, 새얼어문학회, 197-227.
 김양진(2006), 「민속극에 나타난 노인 연구」, 『새얼어문논집』 18, 새얼어문학회, 115-161.
 김양진(2007), 「〈춘향전〉을 통해 본 노인의 현실지향적 모습」, 『새얼어문논집』 19, 새얼어문학회, 65-86.
 김혜정(2011), 「〈규중칠우쟁론기〉 異本 및 주제의식 再考」, 『우리文學研究』 32, 75-108.
 류수열(2006), 「문학교육과정의 경험 범주 내용 구성을 위한 시론」,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129-152.
 류수열(2007),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어과 교수-학습 방안」, 『인문과학연구』 12,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7-35.
 박노준, 『新羅歌謠의 研究』, 열화당, 1982.
 박노춘(1971), 「薛聰과 그의 〈花王戒〉」, 『겨레어문학』 6-1, 19-23.
 박순경(2006), 「한국 교육과정에서의 “법교과학습”의 실태와 개선 방안」, 『교육과정연구』 24-2, 한국교육과정학회, 159-182.
 손정인(1991), 「설총과 〈화왕계〉」, 『韓民族語文』 20, 한민족어문학회, 183-210.
 설성경(2002), 「〈구운몽〉의 주제와 표제의 의미망」, 『한국민족문화』 19-2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43-165.
 성호경(2002), 「龔巖 李賢輔의 삶과 시가」, 『진단학보』 93, 221-255.
 성현경(1994), 「〈숙향전〉 연구」, 『동아연구』 27,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35-296.
 오상태(1998), 「〈花王戒〉 研究」, 『語文學』 65, 191-210.
 오탁번(1994), 「徐廷柱 詩의 比喻와 母性 心象」, 『고려대학교 논문집』 19, 109-129.
 왕석순·전미경(2005),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지도방법-초·중고등학교용 교과서 보완 지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윤영옥(2001), 「시조에 나타난 노인의 모습」, 『한민족어문학』 39, 한민족어문학회, 155-174.
 윤인경 외(2007),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의 목표 및 교육

-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26-2, 한국직업교육학회, 89-104.
- 이금희(1986), 「〈사씨남정기〉 연구 - 인물의 성격 및 내용적 특성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원우문총』 4, 131-158.
- 이도흠(1992), 「〈현화가〉의 문화사회학적 시학」, 『한양어문연구』 10, 한양어문연구회, 79-109.
- 이현승 외(2003), 『늙어가는 대한민국 -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삼성경제연구소.
- 정진권(1984), 「〈규중칠우쟁론기〉 고찰」, 『국어교육』, 48, 59-76.
- 조동일(1979), 『탈춤의 역사와 원리』, 흥성사, 1979.
- 조태영(1999), 「三國遺事」水路夫人 說話의 神話的 成層과 歷史的 實在」, 『고전문학연구』 16, 한국고전문학회, 5-33.
- 마르쿠스 틀리우스 키케로, 천병희 역(2005),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숲.

Direction of Literary Education for Construction of Aged Society-Friendly Cultural Environment

- Concentring on the Image of the Aged in Korean Classic Literature -

Ryu, Su-yeol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devising a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at can contribute to building the aged society-friendly environment.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we first tried to find a reason why the aged society-friendly environment should be built in Korea.

We studied two topics of Korean subject education -cross-curricula learning topics and the experience and attitude of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We also investigated into how activity sections were written for the work that contain examples elders' figures among eighteen different Korean high school literature textbooks. As a result, we found out that the educational content concerning elders, even classical literature that focuses on them, was scarce. Above all, it was hard to find textbooks that contain work related to seniors. Even if the work was about the elderly, we rarely found any clear line to depict figures of the elderly. And, even in work that clearly depict elderly people, the activities that led to an interest in seniors were very rare and slim.

The cause of this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the current curriculum, as a part of the cross-curricula learning, is lacking in the education to prepare people for the aging society, that is to come. Through their

work, it is clear to see that textbook editors are not concerned with the aging Korean society. Although it is noteworthy to mention that elders are depicted positively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most of the time.

It is true that, in *Gongmudohaga*, an old-aged character passed away after fulfilling his duty, and in some folk literatures, seniors fade away after losing their stands to younger generations. But mostly, elders are depicted as the owner of wisdom and the communal role. It is still not clear whether these positive depictions are influenced by Confucian beliefs such as "Seniors Priores". However, it can be said that Korean classical literature can be a motivational force that can help learners get accustomed to the age-friendly environment that should be established. To realize these benefits, systemic incentive is required to make editors interested in preparing students for the aged society-friendly environment. At this point, the pan-course learning topics on the Korean curriculum should be reflected in a balanced manner. Reflecting learning topics presented in the curriculum is not mandatory, so the decision depends solely on the editor. Considering the status quo, it seems the best option we have for building the aged society-friendly environment that is politically recommended is to systemically advise a 'balance in cross-curricula teaching topics'.

류수열

소속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로 222번지 한양대 국어교육과

전화 : 02-2220-1135

전자우편 : rusual@hanynag.ac.kr

이 논문은 2012년 7월 27일 투고 완료되어

2012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2년 8월 18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되었음